

국내 대학 내 포장관련학과 설치에 대하여

장기적 업계발전 위한 적극적 교육투자 필요

1. 서론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컬어지는 IMF 한파의 영향력은 가히 가공할만 하다.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경제 상황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대량부당해고를 예측하면서도 정리해고제도 감수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결국에는 어려움을 잊고, 아니 어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어려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의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의 반면에는 경제불황의 고비를 넘어서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 일어서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2차 가공산업인 포장산업의 경우, 식품·음료 산업 등의 영향 하에서 그 성패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온 것이 사실이다.

포장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단순히 내용물을 담아 진열대에 내어놓는 역할만 강조되어왔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IMF 한파로 인해 신제품의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을 새로운 포장으로 재출시하는 경향이 잦아지면서 포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이는 포장업계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

어진다.

이러한 때에 포장업계는 신기술과 신포장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영세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성장해 온 포장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바로 체계적인 교육에의 투자이다.

2. 국내 포장관련학과를 돌아보며

현재 국내 포장업계의 실무자들의 경우 대학 재학 중 식품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전공 내에서 포장학을 접하고 포장업계에 진출하면서 실무로 중심으로 실력을 쌓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그간 국내 대학에 포장과 관련된 학과가 전무했었고, 전문대학 내에 포장과가 생긴지 이제 5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이 유통과 함께 발전되어온 포장이 그저 유통산업의 부수적인 역할로만 인식되고 독립성있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지난 93년 경북 왜관에 위치한 동국전문대학에는 국내 최초로 포장과가 설립되는 쾌거가 있었는데 이후 95년에는 신성전문대학 산업포장학과 백제예술대학 포장디자인과가 설립

되는동안 포장의 학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고개를 들면서 포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전문대학 내에 포장관련학과가 설치된지 이제 4년여가 지나면서 좀 더 깊이있는 학문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학계를 비롯해 업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4년제 대학 내 포장관련학과 설치 추진의 움직임이다.

굳이 최근의 IMF라는 경제한파를 거론하지 않고라도 각종 산업에서의 기술수준이 평준화되어지고 원가절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포장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상품을 보호하고 진열대에서 눈에 띄게 부각시킨다는 단순개념을 벗어나 포장은 이제 상품의 마케팅력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장이 학문적인 독립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포장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은 사회적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구체화되기까지 업계 및 학계의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4년제 대학 내에 포장관련학과의 설립이 추진되어 온 바 있다.

한 예로,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이명훈 소장의 주도 하에 강릉대학교 내에 유통포장과의 설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학과의 설립이 현실화되는 듯 했지만 교육부의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대중성있는 학과의 설립으로 학교 내의 계획이 선회되어 좌절됐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지 못한 포장업계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한 뼈아픈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만큼 모든 포장인이 이해타산을 접어두고 한데 마음을 모아 전문포장인력의 양성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내 4년제 대학내 포장관련학과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국내 4년제 대학내 포장관련 커리큘럼

1998년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에 설립된 포장관련학과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의 야간학부에 설립된 포장디자인과가 전부이다.

하지만, 이전부터 연관이 있는 학과에 포장관련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었고 이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4년제 대학 내 포장관련학과 설립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포장학은 주로 각 대학의 식품공학과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 경남대학교 식품공학과에 포장공학 I·II,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2학년 과정에 포장공학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안성산업전문대학 식품공학과 등에도 1개 내지 2개 과목씩 포장공학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원에서도 포장관련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실제로 업계 및 학계의 포장인력의 대부분이 위에 나열한 학과를 중심으로 배출되어 있다.

한편, 포장디자인의 경우는 대구대학교 응용미술학과와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전남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등

특집 I

의 3·4학년 과정에 3학점 이상씩 개설되어 있으며 숙명여대, 홍익대, 한양대, 세종대 등의 대학원에도 설립되어 있어 학부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포장디자인의 학문적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구대학교 응용미술학과의 경우 1학년 과정부터 포장디자인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1학년에서는 ▲레터링 ▲인쇄디자인, 2학년에서는 ▲문양디자인 ▲실크스크린 등의 과목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3학년에서는 ▲포장디자인 I·II ▲포장디자인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4학년과정에서는 ▲포장디자인 III·IV를 강의함으로써 포장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있는 인력배출의 전통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대구대학교 응용미술학과는 3·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회 형식인 포장디자인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89년 최충식 교수가 포장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실무적인 감각과 학문적 접근을 심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설립한 바 있다.

실제로 포장디자인연구회에서 매년 12월 발간하고 있는 포장디자인연구회보는 학생들의 논문과 작품들이 게재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각종 공모전에서 이 포장디자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연구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소모임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되어진다.

1979년 당시 국내에 최초로 포장디자인관련 커리큘럼을 개설하면서 포장디자인의 학문적 접근의 물꼬를 튼 바 있는, 포장디자인계의 전통이

는 학교인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과의 경우는 40명의 정원 중 25명 정도가 포장디자인을 전공으로 선택할 정도로 포장디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학년 과정에 ▲상업포장, 3학년에 ▲디자인사 ▲상업포장 I·II를 개설하고 있으며 4학년의 ▲공업포장 ▲상업포장 III·IV ▲프레젠테이션기법 등을 중심으로 많은 과목이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커리큘럼 내에 유통과정까지 총괄하고 있다.

김지철 교수가 역량있는 포장디자인어 육성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투자해 온 바 있는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과는 현재 포장디자인 관련 현역 전임교수 5명, 시간강사 8명 정도를 학계에 배출했으며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위주 능력배양에도 최선을 다해 업계에 진출한 많은 인력들이 인정받고 있다.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의 회장인 선정근 교수가 전임교수로 있는 전남대학교 산업디자인과는 3, 4학년에 ▲시각 및 포장디자인을 학기당 4학점씩 개설하고 있고 있는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 의존도를 고려해 3학년 과정에서는 컴퓨터 작업을 절대 불허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작업에만 의존하다 보면 붓 터치 의 감각과 색감을 잊고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디자인에만 치우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투자이다.

현재 전남대학교 산업디자인과는 전임교수 2명과 외부강사, 30명 정원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7명이 포장디자인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몇 대학 및 대학원에 포장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최근 물류 및 유통분야가

부각되면서 대학 내 커리큘럼이 개설되고 있고, 명지대학교 유통대학원 등 이와 관련된 학과의 개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 말을 맺으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포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들게 될까?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치만큼의 대답을 듣는 것은 무리일 지도 모르겠다.

일반 소비자들의 포장에 대한 무지함을 타기기 이전에 포장업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관심을 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포장은 지금껏 상품의 부수적인 부분으로만 인식되어 왔고 환경문제의 대두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시대 속의 오류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포장인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반의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고 포장의 개념 정립 및 확산, 환경친화적이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내세우기 위해서도 포장의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독립은 필연적이다.

소비수준의 상승과 기술평준화 추세에 의해 재인식되어 오던 포장은 이제 IMF 한파로 인한 경제불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새로운 기술력을 갖춘 포장재의 개발, 그리고 마케팅력을 갖춘 포장디자인의 정착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포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포장 및 포장

디자인 전문인력의 확보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의 대두로 인해 이제 4년제 대학 내 포장관련학과 설치의 설립은 사회적인 요구가 되고 지난 98년 1월 한양대학교 포장디자인과가 설립되었고 조선대학교에서 올 신입생부터 포장디자인 전공학생을 따로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가가 국내 4년제 대학 내 포장관련학과 설립에 대한 포장인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하나의 촉발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포장관련학과 설치이라는 대의를 두고 전문성을 배가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전문교수진의 확보, 포장의 개념 및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포장관련 과목의 설치 등에도 공동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 GNP의 6%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포장산업이 21세기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포장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즉 가능성 있는 인자에 대한 교육적 투자를 통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업계에서는 기술개발과 국제적인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포장관련학과 졸업생의 사회진출을 위한 산학연계도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포장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포장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구체적이고 현명한 첫 걸음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포장교육에의 현실화에 업계 및 학계의 집중력이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윤지은 기자